

***실내디자인학 연구에 대한 실무자들의 견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How Practitioners Perceive Interior Design Research"

심은주* / Shim, Eun-Ju
박현수** / Park, Hyeon-Soo

Abstract

Seidel (1981) asserted that, information produced by researchers was not being used by practicing professionals because the researchers and designers did not share the same perception of research. Nearly all of his research subjects indicated that other researchers(rather than designers) were their audience. Furthermore, criteria that were valued in academic research such as originality or choice of appropriate methods did not increase quality of information in the eyes of the designers. Instead they valued research results with relevant information, check lists, and design guidelines. More than two decades have passed since Seidel examined the gap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Scholarly research by academics continues to be a major prerequisite to tenure and promotion. While these expectations may increase the quantity of research, the question might still be asked, "Are the data enhancing the quality of design?" The present study is an analysis on how interior design practitioners perceive and perform research. By using Seidel's research as a framework the author has developed a questionnaire in order to understand meanings and affects of research in the practitioners' field. Thus hope to serve as a step towards strengthening collaborative modes between the two communities, interior design academic and practice.

키워드 : 실내 디자인 연구, 실내 디자인 실무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학문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이론에 따라 체계화된 지식을 지칭한다. 타 학문과 비교하여 그 학문적 역사가 길지 않은 실내디자인학이지만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수많은 논문들이 게재, 발표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예술이나 과학이나에 관한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세기 중반 주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더욱이 실내디자인은 19세기까지 주로 장인들의 공예품에 그 기원을 두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관적 사고과정으로 창출되는 즉, 블랙 박스(black box)의 프로세스를 그 특성으로 하는 예술의 한 분야로 아직까지도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실내디자인의 학술지에 연구 논문들의

방법론들을 살펴보면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글래스 박스(glass box)적 접근이 보다 많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 이제 실내디자인 분야의 학문적 연구에서도 통계와 실험을 통한 실증적 연구 방법론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 폴리아니는 이러한 연구방법들이 때로는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단편적 지식만을 생산하여 왔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²⁾ 이미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 건축계에서 이러한 단편적 지식들이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의 괴리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실내디자인계에서도 1990년대 이후부터 연구와 실무와의 연결점을 모색하고자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이 함께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국내 실내디자인학회가 발족된지 10년이 넘었고 학회지를 통한 학술연구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어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학사와 석사교육에 집중되었던 디자인 교육이 이제 점차 박사 과정의 증가로 실무 중심에서 순수한 학문적 연구의 체계도 갖추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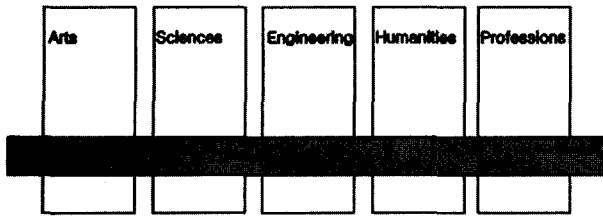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조교수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학과 조교수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건국대학교 신입교원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1) J. C. Jones, Design Methods, John Wiley & Sons, 1992, pp.46-58.

2) M. Polyani, The Tacit Dimension, Doubleday & Compant Inc., 1966.



<그림 1> 디자인의 특성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위의 <그림 1>³⁾에서 볼 수 있듯이 디자인학이 갖고 있는 특성은 개별적이지 않고 혼합적이라는 것이며 일반 순수 학문과 달리 실용학문으로서 실무와도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교육과 같이 실무에서도 학술적 연구 또는 리서치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중요한 단계로 인식되어 왔으나 아직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리서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그 동안 발표되어 온 많은 학술연구 결과들이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제 유아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실내디자인계에서 학술적 연구와 실무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무자들의 견해를 고찰하여 봄으로써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점검해 봄과 동시에 향후 실내디자인 학술적 연구와 실무와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우선 각종 문헌과 자료의 분석을 통한 이론적 고찰을 선행하였다. 특히 1979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 건축가들을 상대로 진행되어 미국 건축계의 연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이델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의 기본틀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실내건축가 협회인 KOSID의 회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실내디자인 전문 회사의 디자인실 직원 73인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의 설문 대상자들은 현재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실내디자인너들에게 국한되어 있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 향후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지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 움직이는 실무자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간단하게 계획하였는데 일반 객관식 질문과 5단계의 라이커 스케일 방식을 혼용하여 다음의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설문 응답자의 특성: 간단하고 기본적인 질문들로 연령, 성별, 근무 경력 등 응답자들에게 설문지에 대한 거부감이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조사 대상의 배경을 파악하는데 활용되었다.

2) 연구와 실무와의 관계: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학술적 연구 및 리서치의 개념, 필요성, 방법, 용이성 등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설문하였다.

3) 용어의 정리: 본 논문에서는 '학술적 연구'와 '리서치'라는 용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의 학문적 분야에서의 개념과는 약간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연구와 리서치는 동일한 단어로 새로운 학문적 결과를 발견해나가는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딕슨과 화이트의 논문에 의하면 리서치(즉, 연구)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은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각종 논문의 형식을 통해 심사를 거쳐 발표되는 기존 개념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발표물 또는 그 과정을 리서치라 하는 반면, 대다수의 실무자들이 리서치를 단순한 자료 조사 정도로 생각하는 성향이 짙다고 하고 있다.⁴⁾ 그 이유 중 하나는 학교에서부터 그 용어가 혼용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프로그래밍 단계에서의 자료 수집을 흔히 '리서치'라고 칭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의 혼란이 야기되어 왔다고 딕슨과 화이트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설문지 구성

분류	설문 내용
설문지의 특성 파악	성별
	나이
	학력
	전공
	실무경력
연구와 실무와의 상관관계 파악	작업 시 리서치(자료조사) 유무
	리서치(자료조사)에 활용되는 자료의 성격
	리서치 (자료조사)자료의 구성요소
	학술적 연구의 중요성
	학술적 연구의 활용도
	학술적 연구의 접근 용이성
	학술적 연구의 이해도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리서치'는 '연구'라는 용어보다 다소 가벼운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많아 본 연구자는 설문 응답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각종 논문의 형식을 통해 심사를 거쳐 발표되는 기존 개념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는 '학술적 연구'로, 단순한 자료조사는 '리서치'로 우선 정의하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도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학술적 연구'와 '리서치'라는 용어 사용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4)A. W. Dickson & A. C. White, Are we speaking the same language?, Journal of Interior Design, 1993, pp.3-10.

3)C. L. Owen, Design Education and Research, Design Issues, 1991, p.5

2. 이론적 배경

2.1. 학술연구의 패러다임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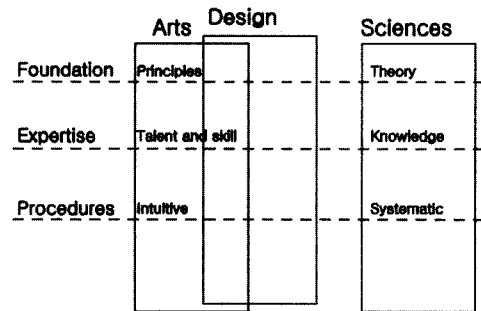
버나드에 의하면 현대 학술연구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친 세 가지의 철학이 있는데 첫째는 과학적 접근 또는 실증주의이고 둘째는 휴머니스트적 접근법, 그리고 가장 최근의 포스트 모던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현재의 학술연구 패러다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학적 접근법은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는데 근본적 취지는 연구자들의 가설을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하여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소 경직된 연구방법론의 승상은 때로 결론도 불분명한 채 숫자와 통계만이 존재하는 주변 컨텍스트와 단절된 단편적 지식의 생산을 유도하였다는 비판도 받게 되었다.⁵⁾

학술연구란 기준에 이미 알려진 지식을 검증하고 새로운 정보 또는 관계를 발견하기 위한 심도 깊은 고찰이라 정의되어 질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본인들의 연구를 최대한 객관화된 방법을 동원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다른 학자들의 검증을 거쳐서 비로소 하나의 연구 논문으로 공인된 학술지를 발표하고자 노력한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온 이러한 연구 과정은 우선 연구자들이 과학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실험한 후 그 결과를 동료 학자들의 검증을 거쳐 발표하고 그 다음 실무자들이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스키니클로스는 정보전달의 모델이라 하는데 이러한 모델 하에서는 연구와 실무가 근본적으로 이원화, 즉 분리되어 있다.⁶⁾ 물론 이러한 연구법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나 그 연구 결과들의 효과적인 활용과 적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75년 자이젤은 디자이너와 사용자들의 연결고리로서 연구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다. 그는 이제 각종 디자인 프로젝트들의 규모가 커지게 되어 더 이상 디자이너와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어려워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용자의 특성이 다양화됨에 따라 디자이너들의 연구자료 활용도 또한 점차 증가하여야 하지만 연구와 실무 사이의 괴리로 인해 이가 쉽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다.⁷⁾ 그렇다면 혹자는 실무자들에게 학술연구물들을 전달하면 바로 적용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마이클은 단순한 연구물의 전달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연구와 실무 사이에 제 3의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⁸⁾

2.2. 실내디자인 프로세스와 리서치

실내디자인이라는 용어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에는 장식미술 혹은 공예미술의 개념으로 주로 예술가들이나 목공예의 장인들이 현재 실내디자이너의 역할을 대신하여 왔던 것이다. 미국에서 실내디자인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던 뉴욕 미술대학(The New York School of Applied and Fine Arts)이나 최초의 전문 실내디자이너라 할 수 있는 울프(Elsie de Wolfe)도 아직 실내 장식의 개념을 갖고 있었으며 1950년대에 비로소 실내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⁹⁾ 디자이너라는 용어 자체가 공학계열의 학문에서 출발하였다 할 수 있으나 이렇듯 장식미술이나 공예의 개념 하에서 출발한 실내디자인은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 과정의 산물인 과학적 학문이기 보다는 아래의 그림 <그림 2>에 보여주는 것처럼 기본 원리와 재능 또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직관적인 예술의 한 분야로 간주되어 왔다.¹⁰⁾



<그림 2> 디자인 과정의 모델

1970년대에 이르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존스의 디자인 방법론이 출간되어 많은 호응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디자인 과정을 공과대학의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와 비교하면서 각 프로세스에 적합한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들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존스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크게 확산의 과정, 변환의 과정, 그리고 수렴의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특히 확산의 과정에 있어서 존스는 리서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디자인 프로젝트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다양한 관계의 규명 즉사용자, 후원자, 생산자, 시장등의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를 인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¹¹⁾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리서

5) Bernard, R. Handbook of methods in cultural anthropology. Alta Mira Press. 1998.

6) L. H. Scheenekloth, Advances in environment, behavior, and design, 1987, pp.307-334.

7) J. Zeisel, Sociology and Architectural Design, Russell Sage, 1975.

8) D. N. Michael, Speculations on Future Planning Process Theory, Amer. Inst. of Planners, 1975, 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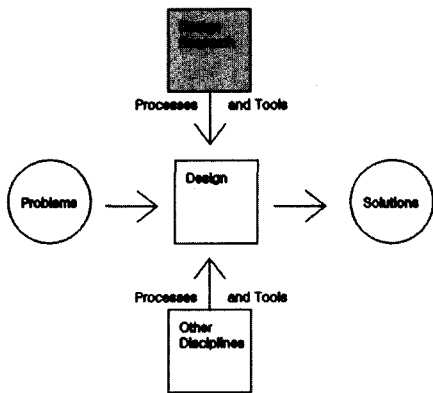
9) S. Whiton & S. Abercrombie, Interior Design & Decoration, Prentice Hall, preface, 2002.

10) C. L. Owen, Design Education and Research, Design Issues, 1991, p.3.

11) J. C. Jones, Design Methods, John Wiley & Sons, 1992, pp.63-73.

치의 필요성은 비단 학자들만의 의견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기획 단계에서의 조사, 분석 부분일 것이다. <표 2>의 삼우설계에서 제시하는 설계 프로세스에서도 기획에 자료조사 및 분석이 들어가 있고 건축학에서는 조사 분석의 진행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¹²⁾

이렇듯 디자인에 있어서 리서치는 <그림 3>과 같이 학교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실무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¹³⁾ 그러나 앞의 서론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실무자들에게 있어서 리서치란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리서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디자인 과정과 연구

<표 2> 삼우설계 단계별 설계프로세스 적용방법

설계 프로세스	디자인	시방	공사비 내역
기획	자료조사 및 분석	자재의 성능 및 등급설정	공사비 목표설정
계획	디자인 설정	자재시스템 목록작성	예산 공사비 산정
기본	디자인 구체화	개략 시방서	개략 공사비 산정
실시	디자인 실시화	공사비 시방서 작성	공사비 가견적 (80%) 상세견적

2.3. 실내디자인 학술연구의 실무활용 방안의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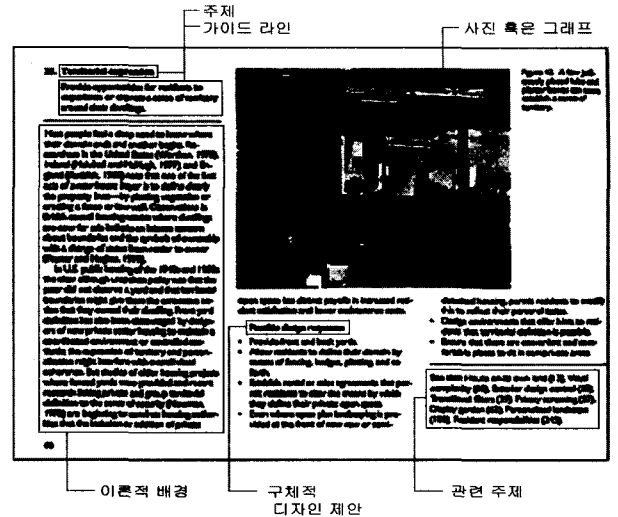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쿠퍼(C. C. Cooper)의 'Easter Hill Village', 반데린(Van der Ryn)과 M. 실버스타인(Silverstein)의 'Dorms at Berkeley', 브롤린(B. B. Brolin)과 자이젤(J. Zeisel)의 'Mass Housing', 또 <그림 4>에서 보이는 마커스(C. C. Marcus)와 사키시안(W. Sarkissian)의 'Housing as If People Mattered' 등과 같이 연구자들에 의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형식의 출판물들이 대거 출현하게 되었다.¹⁴⁾ 물론 내용의 논리성 등에 대한 일부의 비판도 없지는 않았으나 이는 그만큼

12) 김홍룡 & 손명기, 국내프로세스의 합리화, 건축 2002. 09. p.40.

13) C. L. Owen, Design Education and Research, Design Issues, 1991, p.4.

14) C. C. Marcus & W. Sarkissian, Housing as if people matter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p.66.

학술연구와 실무를 연결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노력과 의지가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소수의 연구자들에 국한 되지 않고 환경디자인연구협회인 EDRA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그림 4>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례

특히 뉴욕주립대학교 건축학과와 사이델이라는 교육자이자 연구자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세 번에 걸쳐 실무와 학술연구와의 괴리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EDRA 학회지에 발표하였다. 그는 학술연구의 활용법을 다음의 세 가지 이론으로 정리하였는데 첫째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학술적 연구논문들이 대부분 실무자들로서는 읽기 어렵게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무자들에게 연구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용어들이 배제된 이해하기 편한 형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론이다. 둘째는 연결 이론인데 여기서는 전문적인 중간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술연구와 실무 양쪽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중간자가 연구결과를 실무 용어로 변환하여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재정리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위에서 언급된 출판물들의 저자들이 이러한 중간자인 셈이다. 마지막 이론은 사이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하는 협력 이론인데 이는 다른 학문에서 볼 수 있는 산학 협력의 모델 즉,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와 실무를 진행하는 것이다.¹⁵⁾ 따라서 그는 연구자들과 실무자들 모두의 입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981년에 건축실무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그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연구자들이 매우 중요시하는 점들이 실무자들에게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발표된 연구물들이 1차 자료(새로운 발견)인지, 적절한 방법론이 선택되었는지, 혹은

15) A. D. Seidel, What can we learn from other fields?, Proceedings from Annual Conference of the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Association (EDRA), 1982, pp.16-25.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한 분석인 등은 실무자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실무자들에게는 현재 진행 프로젝트와의 연관성, 구체적인 디자인 해결방법들을 포함하고 있거나 가이드라인이나 체크리스트 등 요점정리가 잘 되어 있는 형식, 또는 결과들을 사진, 다이어그램, 드로잉 등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들로 보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자료들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실무자들이 본인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연구결과에 다소 의심스럽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연구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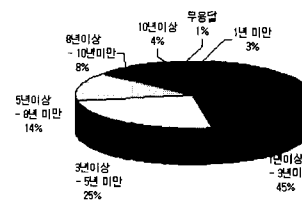
이와 반대로 연구자들을 상대로 조사하였을 때 건축학과 소속의 연구자들은 실무의 직접적용을 위한 학술연구보다는 전통적 학계의 연구 방법이나 각종 권위 있는 논문집에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에 반해 일반 컨설팅 회사들에게 연구목적은 고객 만족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학계에 소속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본인의 연구물의 대상은 실무자들이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이라 밝히고 있으며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연구물을 발표하기 어려운 이유를 권위 있는 논문집에 논문들을 발표해야만 학교에서 인정받고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⁶⁾

실내디자인계에서도 1990년대에 이르러 학술연구와 실무와의 연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미국 실내디자인 학회지인 JID에 게재된 한 논문에 의하면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리서치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리서치의 의미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아닌 연구의 최종 사용에 있으며 매우 실질적인 것으로서, 학계에서 생각하는 그것과는 사뭇 다를 수 있다.¹⁷⁾ 최근 미네소타 주립대학(University of Minnesota)의 한 연구팀은 미국 실내디자인 협회인 ASID로부터 연구지원을 받아 기존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 실무자들이 쉽게 인터넷으로 필요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¹⁸⁾ 물론 이 데이터베이스는 막대한 양의 연구 자료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하기에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연구결과들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아쉬움도 주고 있다. 그러나 실내디자인의 실무와 학술연구를 연결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작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학술연구들을 보다 더 큰 틀로 연결하는 작업을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이자 오랜 동안 카네기 교육재단의 회장으로 활동하여 온 보이어는 'the scholarship of integration'이라 명명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학자들이 중요시하였던 1차적 연구가 아닌 2차적 연구라 할 수 있는데 1차적 연구의 초점이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 있다면 이러한 2차적 연구는 1차적 연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목표는 해석을 통하여 본인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연구물들을 하나의 큰 패턴으로 연결하는데 있다.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연구법에 비하여 그 동안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1989년 미국 대학교수 설문 보고서에 의하면 75%의 교수들이 이러한 2차적 연구 또한 학문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동의하고 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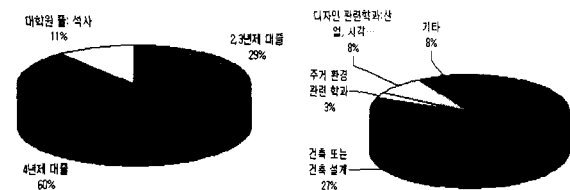
3. 실내디자인 연구에 대한 설문 조사 분석

3.1. 조사대상자의 배경



<그림 5> 설문응답자의 실무경력 분포도

설문 응답자들은 서울특별시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10여개 회사의 디자인실 근무자 73명으로 여성 디자이너가 40명, 남성 디자이너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30세 미만이 47%, 35세 미만이 45%로 전체의 92%가 35세 미만의 젊은 디자이너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문 응답자들의 73%가 실무 경력은 5년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력은 전체의 29%가 2, 3년제 대학, 60%가 4년제 대학 출신들이며 석사학위 소지자들도 11%에 이르고 있다.



<그림 6> 설문응답자의 학력 분포도

<그림 7> 설문응답자의 전공 분포도

16)A. D. Seidel, How designers evaluate information and why researchers may not care, Proceedings from Annual Conference of the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Association(EDRA), 1981, pp.91-98.

17)A. W. Dickson & A. C. White, Are we speaking the same language?, Journal of Interior Design, 19 (1), 1993, pp.3-10.

18)http://informedesign.umn.edu. 본 웹 사이트는 실내디자인의 실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디자인 도구(tool)로서 공간, 주제, 그리고 사용자의 세 카테고리 하에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된 논문을 간단히 요약하고 또 자체적으로 정리한 부분까지 첨가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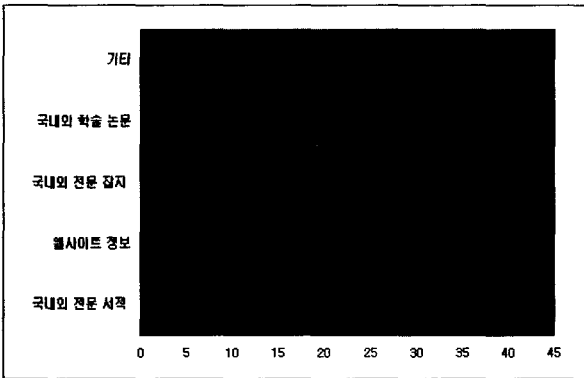
19)E. Boyer, Scholarship Reconsidered: Priorities of the professoriate. 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1990, pp.18-21. Boyer는 일반적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건축 교육에도 큰 관심을 보여 1996년에는 미국의 건축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3년간의 조사 보고서인 'Building Community: A new future for Architecture education and practice; A special report'를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다른 학문적 영역과 다른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 교육적 특성을 갖고 있는 건축대학의 교육 방식, 내용, 그리고 교수진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여 건축 관련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자들 그리고 교육 행정가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최종 학위의 전공을 살펴보면 실내디자인 혹은 실내건축학과 졸업생들이 가장 많은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학과 졸업생들도 27%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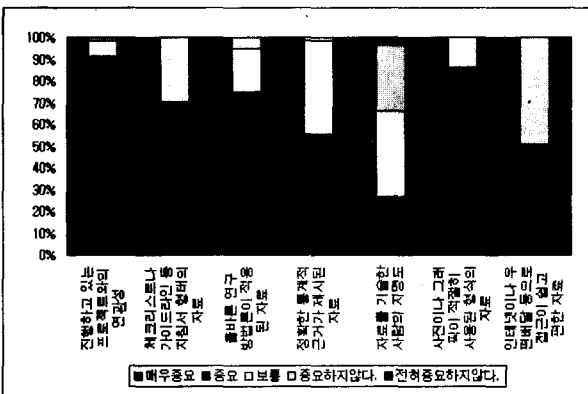
3.2. 조사 결과

(1) 실무와 리서치에 대한 분석

본 연구에서는 리서치에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문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설문 응답자들의 78%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리서치를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리서치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의 63%가 시간 부족을, 19%가 방법을 몰라서, 19%가 자료가 없어서라고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설문 응답자들의 학력 배경과 비교해 보면 2,3년제 대학 졸업생들의 57%가, 4년제 대학교 졸업생들의 79.5%가, 그리고 대학원(석사학위) 졸업자의 87.5%가 디자인 작업과정에 리서치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의 성격을 보면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외 전문지, 관련 서적, 인터넷 정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학술 논문을 활용한다는 실무자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리서치 자료의 종류 (복수 응답)



<그림 9> 리서치 자료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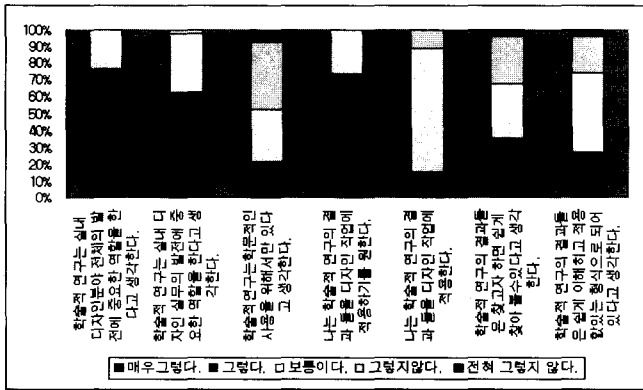
<표 3> 리서치 자료 구성요소에 관한 설문내용

항목	내용	N	%	M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의 연관성	매우 중요하다	24	42	4.3
	중요하다	28	49	
	보통이다	4	7	
	중요하지 않다	1	2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체크리스트나 가이드라인 등 지침서 형식의 자료	매우 중요하다	8	14	3.8
	중요하다	32	56	
	보통이다	17	30	
	중요하지 않다	·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올바른 연구 방법론이 적용된 자료	매우 중요하다	9	16	3.8
	중요하다	33	58	
	보통이다	12	21	
	중요하지 않다	3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정확한 통계 근거가 제시된 자료	매우 중요하다	11	19	3.7
	중요하다	20	35	
	보통이다	25	44	
	중요하지 않다	1	2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자료를 기술한 사람의 지명도	매우 중요하다	·	·	2.9
	중요하다	15	26	
	보통이다	23	40	
	중요하지 않다	17	30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4	
사진이나 그래픽이 적절히 사용된 형식의 자료	매우 중요하다	19	33	4.2
	중요하다	30	53	
	보통이다	8	14	
	중요하지 않다	·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인터넷이나 우편배달 등으로 접근이 쉽고 편한 자료	매우 중요하다	7	12	3.6
	중요하다	22	39	
	보통이다	28	49	
	중요하지 않다	·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실무자들이 리서치에 활용하는 자료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문을 보면 <그림 9>와 <표 3>과 같이 프로젝트와의 연관성의 중요도는 91%, 사진이나 그래픽이 적절히 사용된 형식의 자료는 86%로서 평균 4.0을 넘고 있는 가장 높은 항목들로 분류될 수 있다. 체크리스트나 가이드라인 등 지침서 형식의 자료는 70%로 올바른 연구 방법론이나 정확한 통계적 자료의 항목과 비슷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자료를 기술한 사람의 지명도는 평균값 2.9로서 실무자들에게는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 학술적 연구에 대한 분석

학술적 연구의 전체 실내디자인학에 대한 기여도는 <그림 10>과 <표 4>에 나타나듯이 전체의 76%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62%의 응답자들이 학술적 연구가 디자인 실무에도 발전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두 항목의 평균값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학술연구의 실무발전 기여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0> 학술적 연구에 관한 견해

<표 4> 학술적 연구에 대한 설문내용

항목	내용	N	%	M
학술적 연구는 실내디자인 전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우 그렇다	14	20	4.0
	그렇다	40	56	
	보통이다	17	24	
	그렇지 않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	·	
학술적 연구는 실내디자인 실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우 그렇다	9	13	3.2
	그렇다	35	49	
	보통이다	25	35	
	그렇지 않다	2	3	
	전혀 그렇지 않다	·	·	
학술적 연구는 학문적 사용만을 위해서만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2	3	2.7
	그렇다	13	18	
	보통이다	22	31	
	그렇지 않다	29	41	
	전혀 그렇지 않다	5	7	
나는 학술적 연구의 결과들을 디자인 작업에 적용하기를 원한다.	매우 그렇다	11	15	3.9
	그렇다	41	58	
	보통이다	19	27	
	그렇지 않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	·	
나는 학술적 연구의 결과들을 디자인 작업에 적용한다.	매우 그렇다	·	·	3.0
	그렇다	11	16	
	보통이다	52	73	
	그렇지 않다	8	11	
	전혀 그렇지 않다	·	·	
학술적 연구의 결과들은 찾고자 한다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접근의 용이성)	매우 그렇다	1	1	3.0
	그렇다	24	34	
	보통이다	23	32	
	그렇지 않다	20	28	
	전혀 그렇지 않다	3	5	
학술적 연구의 결과들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2	3	3.0
	그렇다	17	24	
	보통이다	33	46	
	그렇지 않다	15	21	
	전혀 그렇지 않다	4	6	

그러나 학술 연구는 학문적 사용만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항목의 평균값은 2.7로 나타나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학술연구의 실무적 가치는 인정되고 있음 또한 알 수 있다. 특히 응답자들 가운데 대학원 졸업생(석사학위)들의 경우 학술적 연구는 학문적 사용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하나도 없었다는 점은 특이할 점이라 하겠다.

또한 본 설문에 의하면 73%의 응답자들이 학술적 연구를 실무에 적용하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였는데 이 가운데 2,3년제 대학 졸업자는 71%,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80%, 그리고 대학원 졸업생(석사학위)의 88%가 학술적 연구를 적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6%의 응답자만이 학술적 연구를 적용한다고 하였으며 접근이 용이성이나 이해도 면에 있어서는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거의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으며 중립적인 대답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4. 요약 및 결론

미국의 실내디자인계에서는 실무와 연구와의 연계에 관하여 90년대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건축과 실내디자인계에 무거운 숙제거리가 되어 버린 학술연구와 실무와의 연계성은 이제 다른 나라의 고민거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제 국내에서도 실내디자인 학술연구와 실무의 연계성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취지로 지난 4월에 본 연구자는 실내디자인 교육의 인증 제도를 통해 실무와 교육과의 연계를 시도하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무와 학술연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실무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분석하였으며 결과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리서치 혹은 자료조사를 행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다수의 실무자들이 리서치를 '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으며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자들의 가 시간 부족을 그 사유로 꼽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방법을 몰라서', '자료가 없어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리서치 자료에 관해서는 각종 학술 논문을 활용한다는 응답자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은 디자인 프로젝트 위주로 구성된 국내의 전문지나 서적을 주로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실내디자인 학술연구가 실무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자료들의 구성요소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의 연관성이나 그래픽, 사진 등의 이미지가 사용된 자료들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이트의 연결이론에서도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학계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이

해하기 쉬운 그래픽과 이미지를 첨가하여 재정리한 자료를 국내 전문지와 연계하여 바쁜 프로젝트 스케줄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수많은 실무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한다.

2. 설문 응답자의 학력과 학술연구에 대한 분석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리서치를 한다는 응답과 학술적 연구를 디자인 작업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대학원 졸업자들 가운데 학술연구는 학문적 사용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응답한 자는 하나도 없었다. 이렇듯 학교 교육의 성격이 실무에서의 디자인 리서치와 학술연구에 대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에 디자인 리서치에 대한 올바른 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3. 76%(평균값 4.0)의 응답자들이 학술연구가 실내디자인의 전체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실무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나 학술연구가 실내디자인 실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항목에서는 평균값 3.2라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향후 실무에서 연구의 활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본 설문에 의하면 많은 응답자들이 학술연구의 결과를 디자인 작업에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연구 결과를 간단히 찾아보기가 어렵고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보다 간편하고 쉽게 학술연구의 결과들을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계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넓혀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연구의 직접적인 생산자인 학계의 의견을 수렴, 고찰하는 것을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참고문헌

1. 김홍룡 & 손명기, 국내프로세스의 합리화, 건축 2002. 09.
2. A. D. Seidel, What can we learn from other fields?, Proceedings from Annual Conference of the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Association (EDRA), 1982.
3. A. D. Seidel, How designers evaluate information and why researchers may not care, Proceedings from Annual Conference of the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Association (EDRA), 1981.
4. A. W. Dickson & A. C. White, Are we speaking the same language?, Journal of Interior Design, 19 (1), 1993.
5. C. C. Marcus & W. Sarkissian, Housing as if people matter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p.66.
6. C. L. Owen, Design Education and Research, Design Issues, 1991,
7. D. N. Michael, Speculations on Future Planning Process Theory, Amer. Inst. of Planners, 1975.
8. E. Boyer, Scholarship Reconsidered: Priorities of the professoriate, 1990.
9. J. C. Jones, Design Methods, John Wiley & Sons, 1992.
10. J. Zeisel, Sociology and Architectural Design, Russell Sage, 1975.
11. L. H. Scheenekloth, Advances in environment, behavior, and design, 1987.
12. M. Polyani, The Tacit Dimension, Doubleday & Company Inc, 1966.
13. R. Bernard, Handbook of methods in cultural anthropology. Alta Mira Press, 1998.
14. S. Whiton & S. Abercrombie, Interior Design & Decoration, Prentice Hall, preface, 2002.
15. <http://informedesign.umn.edu>.

<접수 : 2004. 6. 30>